

TALK 푸른방송 공식 SNS에서 지역소식과 이벤트, 다양한 강좌정보를 만나보세요.

# GCS CULTURE CENTER

## 푸른방송 문화센터

### WINTER, 2020

#### 겨울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2020년 12월 1일(화) ~ 2021년 2월 27일(토)  
/ 접수기간 11월 2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053) 565-0877~8  
서재점 053) 624-0500

#### New Class 새롭게 만나는 시간! 신규강좌



**프랑스 자수**  
수 10:30~12:00  
100,000원 / 재료비 100,000원  
구리아 대한유림자수협회대표

**3D펜 창의융합지도자**  
금 10:30~12:00  
6회 90,000원 / 재료비 100,000원  
※3D펜, 재료비, 자격증응시료, 자격증비용 포함  
민진아 전문강사

**아프리카 전통악기  
엄지피아노 칼림바**  
목 14:00 ~ 14:50 (소수정예6명)  
120,000원 / 교재비 10,000원  
※악기 상담 후 구입요망  
(첫시간 악기대여 가능)  
왕신애 한국칼림바협회 대구2지사장



**팡야팡야 유아체육**  
토 12:00~12:50 (5~7세)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용, 물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팡야팡야 음악놀이**  
토 13:00~13:50 (6,7세)  
토 14:00~14:50 (8세이상)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용동화, 놀이기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3D펜 창의융합 주니어반**  
금 16:00~16:50 (7세~초등)  
10회 75,000원 / 재료비 45,000원  
민진아 전문강사

# 푸른신문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제1,149호

창간 :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달성 지역신문  
www.prsinmu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과 SP-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프링골프 : 053) 584-0775

헬스 연간회원 댄스·요가·필라테스·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헬스 100% 참숯가마**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프링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 585-0100  
대실역 2번 출구 대백마트 뒷편

포장이사 전문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 지면안내 >>>

|         |   |        |   |
|---------|---|--------|---|
| 지역      | > | 03~9면  | > |
| 고령      | > | 12면    | > |
| 성주      | > | 13면    | > |
| 지역사랑파트너 | > | 15면    | > |
| 종합      | > | 16~19면 | > |
| 기고      | > | 20~21면 | > |
| 교육      | > | 23~25면 | > |
| 문화      | > | 26~27면 | > |
| 건강      | > | 29면    | > |
| 운세·날씨   | > | 30면    | > |
| 퍼즐      | > | 31면    | > |

## 달성의 비상, 한 자리에서 확인한다

### ‘함께 그린 달성 10년’ 특별사진전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10년의 발전상을 담은 사진 60점을 독점 공개한다.

1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열리는 ‘달성 10년사 특별사진전’은 달성이 걸어온 지난 10년간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기록이다. 달성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상을 통해 높아진 달성군의 위상을 확인하고 미래의 달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함께 그린 달성 10년’을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 경제, 문화·관광, 복지·교육, SOC 기반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발전을 이루면서 전국 군 단위 ‘최고’라는 평가를 받게 한 생생한 현장 모습들을 60장의 사진으로 압축했다.

신라천변 고찰 대견사의 중창부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사문진역사공원,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후의 모습, 대한민국 명소로 지정된 송해공원, 케이볼카가 설치될 비슬산까지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달성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 “인구 18만 명의 평범한 농촌이 불과 10년 만에 2배 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경제도시, 대구 1, 2호 관광지가 있는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거듭났다”고 감회를 밝히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군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0년의 기록을 보면서, 달라진 달성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무료이다.

전국 군 단위 인구 1위인 달성군은 평균연령 41.2세의 젊은 도시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대구시 1, 2호 관광지인 비슬산과 화원유원지, 대한민국 명소로 지정된 송해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대구 산업경제와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했다. 특히 대구시로 편입된 지 25년 만에 대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면서, 2021년 예산 규모가 1조를 돌파하는 등 1914년 개청 이래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변점식 기자

## 달서구, 공공기관 청렴도 8년 연속 우수

전국 자치구 중 8년 연속 2등급 이상 3개, 대구 유일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69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 II등급으로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달서구는 전국 600여개의 공공기관 중 기초자치단체 자치구(69개)에서 지난해 대비 0.01점 상승한 8.54점으로 측정되어 8년 연속 II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달서구를 포함하여 3개 자치구만 달성한 성과다. 달서구의 이러한 성과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가능했다.

달서구는 민원처리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실시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충민원 전문관 운영을 통해 민원인과 신뢰를 돈독히 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특히, 공직자의 청렴 생활화를 위

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형형 부패방지교육 실시, 매달 첫째 주 주요 일 전 직원이 청렴을 다짐하는 ‘보다 청렴한 달서 데이’ 운영 및 청렴공직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태훈 구청장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가치관이며 실천해야 하는 생활 덕목인 청렴도에서 전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달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 공단검진은 공단역에서



주차빌딩 완공

(조감도)

**찾아오시는 길** 3호선 공단역 앞

**신천대로** **주차빌딩** **여성회관** **팔달교** **3호선공단역** **이마트 트레이더스**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구북구)

**진료시간**

평 일 : 08:00~16:30  
토요일 : 08:00~11:30

**1호선 환승 [명덕역] ⇒ 3호선 [공단역]**  
**2호선 환승 [청라언덕역] ⇒ 3호선 [공단역]**

527, 708, 719, 724, 726, 730, 750,  
200, 250, 251-1, 300, 북구1, 북구4, 칠곡2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구북구] ☎ 전화예약 053)350-9000



##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달서구, 무인 약취시료자동채취기 설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1일 성서산업단지 내 2개소와 민원다발지역 3개소에 약취측정센서 및 무인포집기능을 탑재한 약취시료 자동채취기를 신규 설치했다. 달서구는 12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IOT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달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구비로 4대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착된 약취 센서(복합약취)에서 고농도 약취가 감지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폰 전용 APP을 이용해 자동(원격)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약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5월 환경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면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인력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상황실’을 구축해 입체적으로 순찰·단속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올해 설치하는 약취시료자동채취장치와 환경감시 드론을 연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설치장소 5개소: 월천공원, 성서산업단지체육시설, 이곡장미공원, 웃은얼굴아트센터, 월성2동행정복지센터

## 특별함이 있는 ‘길우어린이공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더욱더 집밖 외출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쉽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원을 소개 하고자 한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 되어진 공원으로 올해 10월 16일에 새로 개장한 길우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이다. 개장 당시 달서구청장이신 이태훈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개장식을 열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공원이다. 길우공원이 특별한 이유에

는 공원 바닥에 턱이 없다는 것이다. 턱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가 거리낌 없이 공원 안까지 들어 갈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탈 수 있는 회전놀이기구와 몸이 조금 불편해도 편하게 누워서 탈 수 있는 원형 그네도있다. 휠체어를 타고 몸이 조금 불편한 어린친구들도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어린이공원인 것이다. 또한 이곳 공원에는 유명 놀이동산이나 가야 볼수 있는 모험 바위굴과 그위로 설계된 출렁다리는 아이들의 모험심

을 자극하며 사진찍기도 좋은 포토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통으로된 미끄럼틀과 손잡이 식으로 되어 있는 구름다리, 도르레에 작은 통을 달아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공원이 다. 어린이공원이지만 공원 한 켠에는 함께 온 부모님들이나 주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과 쉴 수 있는 정자도 있다. 더욱이 체육시설 주변으로 는 폭신한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 운동중 넘어 졌을때의 안전은 물론 무릎이 안좋은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안정감을 준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지 만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공원 산책로 덕분에 숲속 놀이터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공원위치는 달서구 장기동 825-5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도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은 어린이공원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

##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유효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시성** \_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통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카탈로그성** \_ 소평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 대구도시철도,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안전문화활동 수행 등 평가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안전문화대상 공공 부문(단체)에서 ‘국무총리 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과 각종 안전문화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발생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 및 방역상황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시철도 집단감염 및 종사자

감염을 성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역사 및 전동차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 우대 칸’을 운영했으며, 전동차 내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스티커, 역사 승강장에는 ‘거리 두기 유도’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사는 ISO45001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동종기관 최초로 무재해 52배를 달성했다.

홍승환 사장은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관리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행복과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시민단체 합동 방역

### 푸른방송, YBM어학원 동성로점 MOU체결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과 YBM어학원 동성로점은 8일 푸른방송 4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역민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각종 정보제공 및 영상물 제작 등 지역민의 교육 및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

하기로 했다.

토익강좌 프로그램과 중국어 회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 푸른방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승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예방해요~

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할 때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다. 바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가를 답하는 단계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원가입이 불가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가 필요한 곳은 장소를 불문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년이 바뀌어 처음 씌는 답인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

는 가정통신문이 바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될 만큼 동의서 수합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필수가 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그만큼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절대 노출

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법인이거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꼭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다

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누군가가 드러난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가족정

보, 최종학력, 병역정보, 의료 정보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취미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인데 흡연 여부 및 음주량부터 좋아하는 스포츠, 여가 또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동 습관이 필요하다. 우선 무턱대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기보다는 정보처리방 침이나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비밀번호는 남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하되 자주 바꾸는 게 좋고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아이핀(I-

PIN)을 활용하는 습관도 좋다. 또한 금융거래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지 말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만 다운로드해야 한다.

자녀가 어려 부모가 대신 자녀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지를 확인하고 원할 경우 웹사이트에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광고문의  
053. 572-6000

# 애니박스 디지털 182번

# 채널J 디지털 123번

## 진천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 택배기사에게 감사편지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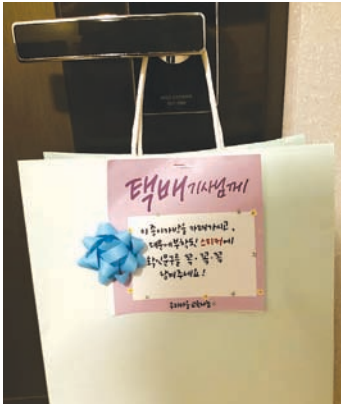
진천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상태)는 청소년들이 택배기사에게 감사편지와 선물키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택배기사들의 과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회로 삼고자 마련됐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에 1차로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했고, 좋은 취지의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2차로 청소년 50명이 참여한 다.

참여 방법은 감사편지와 핫팩 등이 든 선물키트를 수령하여 택배기사가 방문하는 집문 앞 또는 아파트 경비실에 놓아두고 택배기사의 답장을 받아 12월 19일까지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네이버 밴드에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참여할 것으로 인정된다.

최상태 위원장은 “작은 선물임에도 택배기사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일부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



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교육적 체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발해마을’ 가보셨나요~

경산시의 남천을 따라 돌아 보면 크지 않은 마을 임구에 발해마을이라는 표지석이 나온다. 마을로 들어서면 대조영의 흉상과 사당이 있고 마을 곳곳에 발해의 흔적을 그려 놓았다. 코로나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마을은 고즈넉해 보였다. 태극기가 찬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사당뒤편 대숲은 겨울바람도 아랑곳 하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한 채 꽃이 버티고 서 있었다.

경산에 발해마을이라니, 조금 생소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발해마을은 대조영의 후손인 협계대씨들의 집성촌으로 30여호가 살고 있고 봉황이 그려진 문패에 발해 43세손으로 표기한 집들이 많았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후손이 태씨로 불리게 된 것은 발해가 서기926년쯤 멸망 후 서기934년 대광현 황태자가 수만 민중을 거느리고 고려로 내려오니 고려 태조 왕건이 이들에게 골고루 벼슬을 내리고 황해도 해주(지금의 배천)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후 서기1228년 태집성 대장군이 서북병마사로 몽고군을 물리친 공으로 협계현에 봉하여지면서 협계대 씨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서기1592년 태순금 통



2017년에 만들어진 대조영 흉상

정대부가 경산으로 내려와 지금의 남천면 송백리에서 수백년 대를 이어 위패를 모시다가 1920년에 이르러 사당을 중건 하였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고려시대 그 이전부터 대와 태는 통용되어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서 동사통감에도 대조영이 태조영으로 기록된 것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태씨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유민들을 규합하여 220년이나 우리 민족의 맥을 이어 만주를 호령하던 발해의 역사를 일깨워

줄 발해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은 대단했다. 2005년 진해에서 거행된 대조영함 진수식에도 초청되어 참석하였고, 1억 원을 들여 9년 동안 9번의 국가심과정을 거친 대조영의 영정은 2012년에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영정을 모시고 발해마을 고 왕전에서 매년 춘분날에 춘분대제를 올리고 있다. 2017년에 대조영의 흉상도 제작되어 추모제 정원에 모셔져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마을임구에 성을 축조하고 이곳에 오면 발해의 역사를 배우고 제

###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 사업제명                      | 모집직종                        | 학력     | 임금                    |
|---------------------------|-----------------------------|--------|-----------------------|
| 주식회사 아이스타<br>053-556-2581 | 지체·구매·물류 사무원                | 무관     | 월 180~220만 원 (상여 1%)  |
| 루넥스(주)<br>053-782-2017    | 지체·구매 사무원 (일반 사업제)          | 무관     | 연 2,900~3,000만 원      |
| 도미니코텍스교역<br>053-353-6263  |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화학·섬유·의료)  | 무관     |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50%) |
| (주)진영FS<br>053-668-8113   |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 전문대 이상 | 연 3,400~3,600만 원      |
| 대림공업사<br>053-584-0051     |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 고졸 이상  | 월 200만 원 이상           |
| (주)동현정밀<br>053-581-1721   |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 전문대 이상 | 연 3,300만 원 이상         |

| 사업제명                     | 모집직종                            | 학력    | 임금                  |
|--------------------------|---------------------------------|-------|---------------------|
| 전진테크<br>053-688-1039     | 머신센터(MCT) 조직원                   | 무관    | 연 4,500만 원 이상       |
| (주)비룡루드<br>053-598-5661  | 기타 식품기공기계 조직원 (유지·장류, 조식식품, 살충) | 고졸    | 월 220만 원 이상 (상여 5%) |
| (주)신화엔텍<br>053-597-9520  | 머신센터(MCT) 조직원                   | 고졸 이상 | 월 200~350만 원        |
| 부광기업<br>053-641-8118     | 방음 선반 조직원                       | 무관    | 연 3,000~3,600만 원    |
| 대림공업사<br>053-584-0051    | 일반기계 조립원                        | 무관    | 시급 8590원            |
| (주)대원프라운<br>053-588-1902 | 금형원                             | 무관    | 연 3,060만 원 이상       |
| 네오텍<br>053-598-6265      | 단순 사성원 (용접사상 제와-용접원 구분)         | 고졸    | 시급 8590원 이상         |

| 사업제명                   | 모집직종            | 학력    | 임금                         |
|------------------------|-----------------|-------|----------------------------|
| (주)씨엔티<br>053-341-1103 | 제조 단순 종사원       | 고졸 이상 | 월 1,795,310원 이상            |
| 타이테크<br>053-591-2394   |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 무관    | 월 190~260만 원               |
| 성화정밀<br>053-588-8005   | 전기·전자 분야 단순 종사원 | 무관    | 연 3,000~3,200만 원 (상여 100%) |

| 사업제명                       | 모집직종                | 학력     | 임금                         |
|----------------------------|---------------------|--------|----------------------------|
| SS패션경동(패션)<br>053-582-3893 | 온라인 판매원             | 무관     | 연 2,500만 원 이상              |
| 태양종합볼트<br>053-582-2394     |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 고졸 이상  | 월 200~230만 원 (상여 10%)      |
| 성화정밀<br>053-588-8005       |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 무관     | 연 3,000~3,200만 원 (상여 100%) |
| (주)금성물류<br>053-598-2307    |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 무관     | 월 190~200만 원 (상여 10%)      |
| 니드테크<br>053-591-4681       |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 무관     | 월 250~300만 원               |
| (주)대영알앤티<br>053-355-3330   | 자전거 운전원             | 무관     | 연 3,000~3,600만 원           |
| (주)한성물류<br>053-326-8001    |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전문대 이상 | 연 3,000~3,200만 원 (상여 150%) |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euseobu

협할 수 있도록 역사전시관과 박물관도 만들어 해동성국 발해 역사를 길이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중국 지린성의 발해 왕궁터에서 가지고 온 흙을 대조영 황제의 왕릉을 재현한

다음 그 안에 넣어 두고 있다고 한다.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 지키려는 발해마을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선비의 가풍을 지키면서 영원히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이윤영 객원기자



## 더 이상 침수피해는 없다

### 다사서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준공 247억 원 들여 저지대 펌프장과 우수관거 개선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8일 다사서재2 배수펌프장에서 김문오 달성군수, 구자학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및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사서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다사읍 서재리의 다사서재2 지구는 와룡산과 공산에 둘러싸여 있고 급호강 홍수위보다 저지대 지역이라 2010년 8월과 2011년 7월에 건물 11동과 농경지 10ha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달성군은 이 지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2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15년 3

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10월 국비 102억 원 등 208억 원의 펌프장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우수관거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 원 등의 예산을 추가해 총사업비 247억 원을 확보, 분당 1천1백2십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과 1만 4천 톤 저류 가능한 우수지, 그리고 통수단면이 부족했던 우수관거 1.1km 정비사업을 2018년 11월에 착공해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달성군은 2016년 준공한 다사서재1 배수펌프장(사업비 152억 원)과 더불어 다사서재2 배수펌



프장이 완공되면서 다사읍 서재리 지역이 침수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그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과 교통 불편 등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은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연 재해위험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회 아버지학교 졸업식’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제 3회 아버지학교 ‘슬기로운 아버지 생활’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 아버지학교는 20가정(아버지 20명, 자녀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개월 동안 성실히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슬기로운 아버지 생활’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6~11세 자녀와 아버지 48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17일 입학식을 개최했고, 매주 토요일 아버지-자녀교육, 밤상머리교육, 농작물 체험, 도예 체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집콕 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됐다. 안전한 교



육을 위해 6~8세, 9~11세 자녀 나이 기준으로 분반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했으며, 교육 전 후 모든 강의실 소독, 참여자 발열체크 및 수시 손소독,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아버지학교는 생활 속 실질적인 자녀 양육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 내 아버지 역할 및 가족 돌봄 참여의 중요성을 알릴 올바른 아버지상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센터 담당자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학교 신청자가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도 참여자들의 열의와 참

여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가족문화사업, 가족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3-636-7388~911 변점식 기자

## 명품학군 도약 첫 걸음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개소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해마다 변화하는 입시정책과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했다. LH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센터공간을 무상제공 받아 2023년 평생학습관이 건립될 때까지 도원동 LH대규모복합지역본부 1층에서 운영된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학상담 및 입시정보 제공, 입시설명회, 학부모 교실, 학습컨설팅 등을 운영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 교

육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6만 3천여 명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득격차에 의한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품 학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맛



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달서구를 글로

벌 명품 학군, 교육 일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달성군, 겨울밤을 별빛으로 수놓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추운 겨울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인 사문진주막촌과 송해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겨울밤을 선사한다.

사문진주막촌 꽃기둥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LED 은하수 조명을 설치했고, 장미원 일원은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은하수 조명 위에 돛단배 조형물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송해공원에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불빛의 원형구와, 사랑을 주제로 한

별빛 조명을 설치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겨울밤 산책길에 훈훈한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아름답게 장식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솔방울로 만드는 친환경 가슴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다. 건조하면 코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술의 각질도 일어난다. 피부가 건조하면 몸속 수분도 낮아져 기관지 점막도 마르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코로나균이 코점막이나 기관지점막에 기생하기를 좋아하는다고 하니 실내온도와 습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겨울철 적정실내온도는 18~21도 이고 습도는 40~60% 이다.

겨울이면 가슴기가 필수품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있었던 나쁜 기억 때문에 가슴기 사용이 불안하지만 하다. 이럴 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슴기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솔방울로 만드는 친환경 가슴기이다.

솔방울로 가슴기를 만들려면 우선 솔방울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어서 물을 팔팔 끓인 후 솔방울을 넣고 15~20분 정도 소독한다. 솔방울을 간져서 다시한번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준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수한 물을 받아서 솔방울을 담고 물이 충분히 머금게 한 다음 넓은 접시에 놓아두고 2~3일이 지나면 꽃처럼 활짝 피어나면서 가슴기 역할을 한다. 이때, 물에다가 아로마오일이나 굄갑질 말린 것을 넣어주면 향기까지 은은한 나만의 천연가슴기가 탄생한다. 물기가 말라 활짝 핀 솔방울은 정수된 물을 충분히 분무해주면 다시 단단한 솔방울로 변한다. 이렇게 반복하면 한해 겨울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슴기를 쓸 때에는 환기를 잘 해야 한다. 습기는 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공간에서 가슴기를 사용하면 없는 것 보다 못할 수가 있다. 또 예쁜 유리접시나 도자기 접시를 이용하면 인테리어 느낌도 있고 어린애들에게는 자연관찰 효과도 있어 더욱 좋다.

솔방울을 채취 할 때는 색상이 진한 것 보다는 갈색에 가까운 것을 택해야 한다. 밝은 갈색일수록 최근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한 솔방울은 떨어지지 오래되어 세균이나 벌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더 추워지기 전에 내손으로 만드는 솔방울 천연가슴기 추천합니다. 이윤영 객원기자



산책길에 채취한 솔방울

##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 가전렌탈시대!



상기 제품의 다양한 가전 보유



상담문의 053-551-2000



#TREND

#PLUS

#CHANNEL

SANDBOX+

SANDBOX+

SANDBOX+

SANDBOX+

SANDBOX PLUS

SSS

연중무휴 트렌드 맛집

**SANDBOX+**

**달서·달성**



**직장·공장새마을달서구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직장·공장새마을달서구협의회(회장 오명석)가 지난 5일 관내 소외계층 10세대에 세대 당 300장씩 3,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 해마다 직장은 3,000장의 연탄을 10세대에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도 용산1동 이 모씨댁 300장은 직접 직장 회원들이 전달하고, 나머지 9세대는 업체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다.



**(주)용전 허재원 대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주)용전(대표 허재원)은 지난 9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구지면 이정훈 의용소방대장, 백미 100포 기탁**  
구지면 이정훈 의용소방대장은 지난 10일 구지면 사무소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백미 100포(3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화원을 '사문진봉사회' 사랑의 성금 등 기탁**  
달성군 화원을 '사문진봉사회' (회장 이대규)는 지난 8일 화원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 LED형광등 5개를 기탁했다.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지용수)은 지난 7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



**부림해물손수제비칼국수, 라면 10상자 기부**  
유가을 부림해물손수제비칼국수 직원 일동이 지난 10일 유가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10상자를 기부했다.

**달성군 익명의 천사, 300만 원 상당 별꿀 기부**  
지난 10일, 달성군에 거주하는 익명의 주인이 별꿀(2.4kg) 60병(300만 원 상당)을 달성군청에 기탁했다. 익명의 주인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후원 의사만 밝히고 별꿀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별꿀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정 기탁 처리 후,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고령·성주**



**대구은행 고령지점 성금과 연탄 기탁**  
대구은행 고령지점(지점장 임병욱)은 9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과 연탄 2,600장을 기탁했다.



**만성 이순달 대표, 관음사 신도회 성금기탁**  
개진일반산업단지 소재한 만성(대표 이순달)은 10일 고령군청을 방문, 사랑의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개진면에도 사랑의 이불 30채(132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같은 날, 관음사 신도회(주지 도명스님, 신도회 회장 김정화)에서도 고령군청을 방문, 이웃돕기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개진면 개포리 부녀회 성금 등 기탁**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부녀회(회장 윤옥자) 회원들이 성금 50만 원과 라면 20박스(50만 원 상당)를

개진면에 기탁했다. 윤옥자 회장은 우리식당을 운영하면서 성금 50만 원도 기탁했다.

**대한전력전자 이종근 대표 1천만 원 기탁**  
대가면 출향인 대한전력전자(주) 이종근 대표는 11일 성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주)마루조경 성금 기탁**  
(주)마루조경 대표 이희병 씨는 9일 읍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월항농공단지협의회, 성금 200만 원 기탁**  
성주군 월항농공단지협의회(회장 김병영)는 10일 '희망2021나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월항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대가면 청매암 '청매나눔회' 200만 원 기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에 소재한 불교사찰 청매암(정도스님:사암연합회장)의 청매나눔회 회원들이 11일 대가면사무소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파도북어수류면에 가래덕 기탁**  
성주읍 파도북어(대표 김창원)는 9일 수류면사무소를 방문해 가래떡 40포대(총 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성주두레봉사단' 지역아동센터 후원**  
두레봉사단(회장 권태원) 회원 일동은 10일 회원들이 심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성주 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20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했다.



jtbc2



재 미 를 담 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채널



#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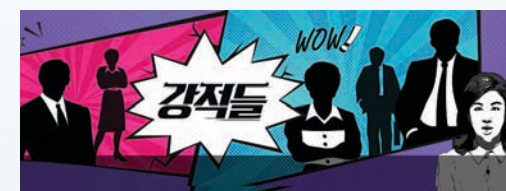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 종합편성채널 (종편)

###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 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똬뚱했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건달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라! 이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추측하고/실험하고/전해 주는 '이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 케이블 채널



###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여신강림이란?  
어른들은 말한다.  
열여덟... 존재 자체 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존재 만으로는 절대 빛날 수 없다. 열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더더욱.  
뭇생것들은 이유로 왕따를 당한 한 소녀, 주경이 있다.  
주경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메이크업이란 마법! 을 통해 여신으로 변신한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유쾌하고 따뜻한. 가슴 떨리고, 때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자존감 제로였던 이 소녀가 자신의 'before'와 'after'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열평하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랑 앞에서도 주춤하지 않고 당당한! 자존감 충만한 소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 (VOD)

###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 소리도 없이

악의 없이, 계획에 없던 유괴법이 되다!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목'. 어느 날 단골이었던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희'를 억지로 떠맡게 된다.



####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중배. 빛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맡겨진 담보 승이.  
두석, 중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시청방법 ▶▶  
매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령군,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재확인

###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매우만족’ 근접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0년 고령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를 시행한 결과 종합만족도 78.3점으로 등간격도에 의한 기준인 80점 이상의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에 근접한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기준 국민행복지수 측정-삶의 만족도 부문 전국 1위’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번 조사는 고령군 각 분야별 행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고령군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군민중심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0년 고령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종합만족도 78.3점은 2019년 종합만족도 76.8점 보다 1.5점 상승했다. 종합만족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 즉 서비스 수요자 측면을 반영한 체감만족도(78.6점)가 서비스 공급요소 측면 평가인 요소만족도(77.9점)보다 +0.7점 더 높아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민원행정서비스(80.6점) 분야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건복지환경(79.2점), 문화관광환경(78.7점), 교육환경(77.3점), 생활환경(76.6점), 경제·산업환경(75.1점), 농·축산환



소통간담회

경(74.2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2019년) 대비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경제산업환경분야의 상승폭이 3.3점으로 가장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타 분야도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상승세를 보여 분야별 만족요인의 상향평준화가 이루

어졌다. 이는 진실된 소통으로 군민의 삶에 더 다가가는 민선7기 고령군 군정 추진 방향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고령군, 청렴도 평가 전국 郡부 ‘2위권’

### 2년 연속 경북도내 청렴도 ‘최고’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상위권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군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 1곳 뿐이다.

이번 측정결과 고령군은 외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나란히 2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2018년 4등급에서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으로 매년 1단계씩 상승해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각종 반부패 청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망을 연계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해 상시운영 했으며, 공사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계약을 한 사업주에게 청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곽용환 군수는 “공무원 모

두가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노력해줄 것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외부 민원인(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5단계로 구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고령군 향교·서원 활용사업

##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0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향교·서원 활용사업 분야(대가야 Culture 향교에서 다!!)다호!!다!!!)에서 문화재청 우수상을 받았다.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조선시대 지식과 문화예술의 요람이었던 향교와 서원의 인문정신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향교의 지역적, 공간

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가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향교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한 향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2021년까지 5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전문가 현장평가, 행정평가, 일반인 모니터

링, 관람객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노력 등에서 전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곽용환 군수는 “소중한 옛 문화재의 가치를 현재에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고령군 신품종 딸기 ‘금실’ 토경재배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고설재배에 특화된 금실 품종의 토경재배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들연영농조합법인(대표 이현광) 배일호 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 지원으로 금실품종의 토경재배 4동을 처음 시도했다. 금실은 당도와 경도가 높고 복숭아향이 나는 프리미엄 딸기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고 수출품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서울청과에서는 12월 8일 기준 최고가 금실 6만 3,000원/2kg, 실향 4만 원/2kg에 거래됐다.

서지향 농업연구사는 “고설대비 첫 수확일은 늦지만 흰가루병·응애 등 병해충 발생률이 낮고, 기존 토경재배농가의 실향이라는 단일화된 품종에서 금실 품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 것은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고령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최우수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0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제2회 경상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6년 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제3단계 시행기간으로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할 핵심적인 업무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내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두 번째 평가를 맞이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엔택트 ‘먹·자·쓰·놀 운동’ 지역경제에 ‘온기(溫氣)’ 불어 넣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3차 재유행에 따라 철저한 방역체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위드코로나(With-COVID) ‘엔택트 먹·자·쓰·놀 운동’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하는 운동으로, 핀-포인트(Pin Point) 지원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현실적 도움을 주면서 안전하고 대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다.

이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펼쳐온 ‘성주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자’ 성주사랑운동을 엔택트형으로 전환하여 ‘성주에서 삼시세끼 운동’, ‘별고를 장보기 운동’, ‘엔택트 관광 활성화’ 분야에 중점 추진된다. ‘성주에서 삼시세끼 운동’은 배달 및 포장음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냄비에 원하는 음식을 데이크 아웃하는 ▲희망냄비 풀이기 ▲밀키트 개발·보급 ▲드라이브 스루 ▲성주에서 삼삼오오 먹자쓰놀 ▲성주장남 간식데이 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모임, 행사 등이 자제되면서 타격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하면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추진한다.

‘별고를 장보기 운동’은 형식적인 장보기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관외거주자 퇴근 후 지역에서 장보기 ▲관내업체 수의계약 확대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집중시행 ▲지역 내 안심식당(50개소) 적극 이용 ▲성주전통시장 온(溫)택트 축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외에

서 이뤄지는 대다수의 소비를 카드형으로 확대된 성주사랑상품권 사용과 연계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엔택트 관광 활성화 분야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관광지 방역요원 배치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극복 방역키트 지원 ▲성주관광 홍보꾸러미 배부 ▲별고를 골목길 경관 정비 ▲비대면 관광 상품 확대 ▲성주 방방곡곡 운동 추진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관광 분야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재정지원을



관내에 지정된 안심식당 마크 부착 모습

확대·추진함과 동시에 이미 지를 개선하여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자 추진된다.

이병환 군수는 “엔택트 먹자쓰놀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물론 소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체 및 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성주군, 각종 평가 ‘우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2등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국 우수  
저탄소생활 실천평가 2년 연속 우수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최근 실시한 정부 및 경상북도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

성주군은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을 받은 이래 올해 평가에서 2등급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이후 처음 종합 2등급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주군은 내·외부 청렴도 점수가 전국 군부 평균보다 낮은 분야 없이 전 분야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공

무원의 청렴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결과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안전관리 대응능력 등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특히,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하도 악취저감사업 추진,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주군은 또한 ‘2020년 저

탄소생활 실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함께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활동, 저탄소생활실천 홍보·캠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저탄소생활 실천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저탄소생활 실천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친환경 생활방식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공무원, 컨설턴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성주군은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변정식 기자



## 성주군, 창업 꿈나무를 키운다

### 찾아가는 청소년 창업교실 운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미래세대 주인공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계발하고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창업교실’을 3회 운영한다.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성주군 청년창업LAB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만족도가 컸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9월 성주여중 3학년 3개 학급, 11월 성주여중 1학년 4개 학급, 21일 성주여고 2학년 5개 학급에서 창업전문 강사진이 각 교실로 찾아가 ‘나는 하비 프리너(hobby-preneur)’란 주제에 맞게 강의와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하비 프리너(hobby-preneur)’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창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을 이르는 창업 최신 트렌드 용어로, 이번 교육과정은 글로벌 한류 콘텐츠들을 통해 나의 적성에 맞는 취미를 발견하고 창업 아이템화 해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계발시켜 나가게끔 앞으로도 예비창업교실 등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주군은 올해 2월에 성주군 청년창업LAB 건물을 준공, 경북산학융합분부를 창업지원 수행기관으로 하여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비창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성주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큰 폭 상승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올해 성주군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환경, 과정, 결과 등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및 만

족도 등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 90.12점의 ‘매우만족’ 수준의 결과를 얻었으며 전년도(87.08점)에 비해 3.04점 상승했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지해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신속·정확·친절 행정으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선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방송

**iHQ** **comedy**TV **Dramax** **k-star** **LIFE** **U** **CUBE TV**







## ‘파크골프’가 뜬다 동호인 늘고 연령층도 다양해져

대구에 파크골프가 뜨고 있다. 파크골프는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의 공간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즐기는 운동이었으나 코로나 등 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 동호인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금은 미국, 중국 등에서도 동호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령화사회 진입, 코로나로 인한 실내운동 억제 등과 맞물려 파크골프 동호인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파크골프협회는 대구시 19개 파크골프장(387홀)의 회원 수를 1만 5천 명으로 추

정하고 있다. 2018년 약 7천명, 2019년 약 1만 명이던 회원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3년 전에 비해 약 3배, 작년에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달서구에는 약 2천여 명, 달성군에는 약 1천200여 명의 회원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의 파크골프장은 특히 달성군에 몰려 많이 있다. 달성군에는 대구 파크골프장의 절반이 넘는 10곳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대구 최대 36홀의 다사파크골프장을 비롯해 강창교 파크골프장, 가창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천천 파크골프장, 논공 달성보파크골프장, 원오교 파크골프장 등

이 있으며, 달서구에는 대명천 수림지 파크골프장이 있다. 파크골프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파크골프장도 내년에 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도 늘어나면서 파크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생기기도 했다. 파크골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변점식 기자



2020 달서구 파크골프 동호인 리그전

### 경기설명

출발지점(티오프)에서 홀(hole)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코스를 돈다.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볼을 넣는 사람이 승리한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하며 게임 당 18홀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적다. 장비는 합성수지로 내부를 채운 직경 6cm의 공을 쓰며, 나무로 만든 길이 86cm, 무게 600g의 클럽 하나만 사용한다. 클럽에는 로프트(loft, 클럽과 페이스가 이루는 각도)가 전혀 없어 뜨거나 날아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 역시 나무로 만든 공을 쳐 잔디위 홀에 넣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다.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세계 휘돌러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장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크골프 (park golf) (스포츠헤프, 2008, 대한체육회)

##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대구 인생샷 핫 플레이스 Top 100

온라인상 인기 관광지 100선 분석…휴대폰 카메라로 만족할만한 인생샷 꿀팁

사진으로 소통하는 요즘,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는 신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남들과 다른 예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최신의 여행 흐름이 되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여행객이 본인의 지난 여행 사진을 뒤늦고 추억을 소환하며 다시 여행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와 함께 코로나 블루로 지쳐 있는 관광객에게 대구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고, 2021년 대구로의 여행 욕구를 북돋우고자 SNS와 포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구 인생샷 명소 100선’을 발표했다. 대구 인생샷 명소 100선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게시물 총 3천 742만 2,618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장소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관광지 45곳, 카페 47곳, 식당과 펍 각 4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심관광지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

행 변화상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여행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진찍기 좋은 테마별 관광자원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테마별 관광지는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자연친화 관광지’ 10곳, 빛으로 물든 대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지’ 10곳, 대구의 전통과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관광지’ 6곳, 근대 역사자원이 풍부한 대구답게 ‘근대문화 관광지’ 10곳, 아기자기하고 대구에서

### 예) 대구 인생샷 촬영 꿀팁



### Where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 1  
스팟 : 도동서원 현판 적힌 건물

### How

방향 : 마루 안쪽 깊은 곳에서 바깥 풍경 쪽으로  
거리 : 기둥과 천장 그리고 바닥으로 프레임만 만드는 것이 관건!  
프레임이 화면에 담길 정도의 거리 유지 필수!  
각도 : 정면. 대칭이 잘 맞아야 웅장한 느낌을 준다~

만 존재하는 ‘트렌디 관광지’ 15곳으로 분류됐다.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자원 분석 결과와 더불어 구체적으

로 어디에서 어떻게 찍으면 인생샷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깨알같은 정보를 사진 전문가와 공동으로 발굴해 제공함

〈자료제공:대구시청〉

## 색다른 겨울 감성 즐기자

비슬산오토캠핑장, 미니얼음 빙벽 조성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늘어난 등산·관광객들의 불거리 제공을 위해 비슬산오토캠핑장에 새로운 미니얼음 빙벽 조성 및 산책로 경관조명을 설치해 색다른 겨울 감성을 연출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올해 얼음동산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자체적으로 미니얼음 빙벽 및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또, 달성군이 지난 11월 캠핑장에 완공한 민속놀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불거리와 놀이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해 지역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환 이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얼음빙벽과 민속놀이 시설을 통해 겨울의 운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휴양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찾아와 좋은 추억을

〈자료제공: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책밥 프로젝트’의 저자, 쌍방향으로 만나다

비슬고, ‘저자 초청 비대면 특강’

비슬고등학교(교장 이재철)는 9일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의 저자인 박경화 작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교 특색프로그램인 책밥 프로젝트(이하 책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읽고 4개 교과에서 깊이 있는 활동을 진행한 후 저자를 모셨기에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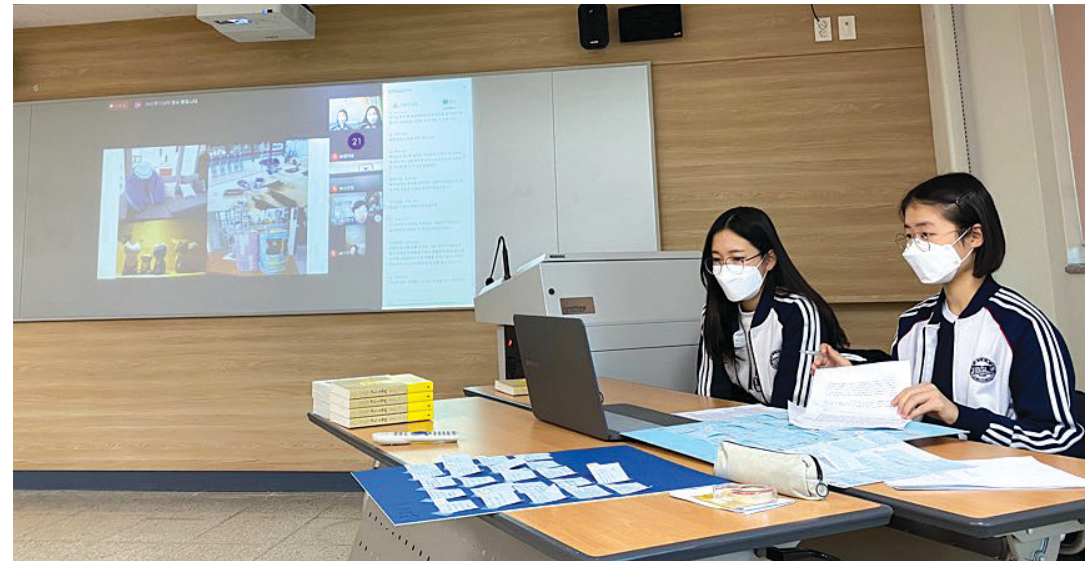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자를 직접 모시기 어려워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일부 학생은 진로실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에서 TV로 시청하며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라인으로 사회를 진행한 학생은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프로젝트가 이번 저자와의 만남이 잘 마무리 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이나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생겼는데 저자를 직접 만나 답변을 들으니 궁금증이 해소되어 좋았다. 특강 내용 중 그림잡이 가장 기억에 남았으며 환경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존경스럽다”, “미세플라스틱, 썩는 생수병, 차 없는 도시, 태양광 환경 파괴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경화 작가는 “비슬고 학생들과 함께 한 2시간의 강의가 뜻 깊었다”면서 “학생들이 미리 질문을 준비하고, 진행을 맡은 두 학생이 강의의 내



용을 정리해 주어서 좋았다. 내 책은 환경 관련 책인데 국어, 과학탐구실험, 한국어사, 영어 시간에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비슬고에서 실시한 ‘책밥 프로젝트’는 책이 밝혀줄 일상이 되도록 기획한 책용합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의 심독(深讀)을 위한 활동이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을 바탕으로 ‘환경’이라는 주제로 독서일지 작성과 질문 선정 및 구술 태양전지 실험, 역사 속 환경 물건 보고서 작성, 영어TED 대회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재철 교장은 “빠르게 바뀌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비슬고 학생들의 융합적인 능력을 키우는 한편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변점식 기자

## 크리스마스 트리

어느덧 무성했던 나뭇가지의 나뭇잎들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은 12월의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12월 하면 떠올려 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 그중에서도 단연 크리스마스일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로 성탄절이라고도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이다.

어렸을 적 교회나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성탄절을 기념해 예쁘게 장식을 꾸미던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이다. 두 종류의 나무 다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있는 고유종들이다.

전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 받는 구상나무는 전나무의 일종으로 소나무과에 속하며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등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1902년 독일로 반출되어 개량되어지며 현재까지도 유럽에서 정원수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를 얻고있다. 하지만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자생하는 곳이 드물어 현재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분류되어 보호되는 나무이기도 하다.

묘아자나무라고도 하는 호랑가시나무 또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천연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된 전라북도 부안군 군락지와 고창군, 완도군, 해남군 등에서 소규모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이다. 감탕나무과 상록소교목에 속하는 호랑가시나무의 특징은 사시사철 녹색인 뾰족한 잎모양과 빨간 열매이다.

두껍고 뾰족한 모양의 진녹색 잎 사이에 매달린 빨간색의 열매 조합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에서는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 나무이기도 하다.

자생 호랑가시나무는 추위에 약한 편이지만 개량된 원예종들은 추위에 강하게 개량되어져 월동도 가능해 졌으며 두통과 골다공증 등의 약재로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올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구상나무 위에 호랑가시나무 장식으로 꾸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즐거움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



유가초

## 안전문화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유가초등학교(교장 우오식)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안전문화대상’에서 장관 표창과 시상금 15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전을 통해 개인 및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문)의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유가초등학교는 공공기관 부문에서 ‘유가 안전 썸’을 띄우는 썸리(3포인트)’라는 주제로 안전문화확산에 힘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기반으로 우리 학교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유가 안전 썸썸리’라는 안전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주제별 안전 일기장 쓰기, 안전골든벨대회 참여, 학급안전동아리 운영,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하굣길 등 조직 내 끈끈한 협업 관계 유지와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유가초는 ‘나무터, 너도 함께, 우리 모두’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

〈자료제공:유가초등학교〉



##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79@hanmail.net



### 146. 신당동 석장승을 아시나요?

#### 1) 프롤로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본적이 있을 것이다. 옛날 TV프로그램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이 나타날만한 타이밍이 되면 골잘 클로우즈업 되던 이미지가 있었다. 툭 붙어진 눈망울과 코, 벙벙벙벙 빠져나온 이빨, 험상궂기 그지없는 장승 얼굴이었다. 이제 곧 귀신이 등장할 것이니 시청자들로 하여금 놀랄 준비를 하라는 신호였다. 어린 시절 시골마을에서는 이런 장승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지금 보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보름달이 뜬 밤에는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어린 아이 혼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 우리고장에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아닌 돌로 만든 석장승이 하나 있다. 여러 자료에서 대구지역 유일의 석장승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알기로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는 대구시민속자료 제2호로 등재된 신당동 석장승에 대한 이야기다.

#### 2) 명관치장승설화(名官治長丞說話)

명관치장승설화는 명관관이 장승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이야기다. 다른 말로 ‘장승재판’ 혹은 ‘망두석재판’이라고도 한다. 제 아무리 이름난 판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장승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주 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효빈잡기』·『대웅문록』·『청구야담』 등에 이 설화가 소개되어 있고, 포청천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포공기안』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비단장수가 장승에 기대어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비단장수는 자신의 비단보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비단장수는 고을 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비단보따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마침 그 고을 판관은 현명한 판결로 이름난 명판관이였다. 판관은 장승이 의심스럽다며 장승을 끌고 와 대질을 하며 장승에게 비단을 내놓으라며 압박질했다. 판관이 말 못하는 장승을 상대로 매질하며 비단을 내놓으라고 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자 고을민들이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때 판관은 장승을 취조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니, 벌을 받지 않으려면 비단 한 필씩을 바치라고 했다. 이때 고을민이 바친 비단 중에 비단장수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었다. 판관은 범인을 잡았고 비단장수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비단을 되찾았다.

#### 3) 장승·장생·장성·벽수·범수·미륵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형상을 새겨 마을입구나 길가에 세워둔 것이다. 나무로 만든 것은 목장승, 돌로 만든 것은 석장승이라 한다.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사찰이나 특정 공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식, 거리나 방향을 표시하는 이정표 등의 역할을 했다. 장승은 일반적으로 남녀한 쌍이 세워지는데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 대표적이다.



▲머리에 관모를 쓰고 두 손으로 봉저럼 생긴 물건을 들고 있다

장승은 명칭이 다양하다. 신라·고려시대에는 장생·장생표주·국장생·황장생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장승·장생우·후·장성·장선주 등으로 불렸다. 이외에도 벽수·벽시·범수·수막살이·수살이·돌미륵·돌하르방 등으로도 불리는 데, 지금은 주로 장승·장성·장신·벽수·벽시 등으로 불린다.

장승은 여러 기원설이 있다. 고유민속기원설은 고대의 남근숭배사상, 토지 경계표시, 솟대, 선돌, 서낭당 등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고, 비교민속기원설은 불구스 기원설, 남방 벼농사 기원설, 환태평양 기원설 등이다.

장승은 크게 목장승과 석장승이 있다. 나무로 만든 목장승은 나무 장대에 새 조각을 올려놓은 솟대형과 통나무에 사람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한 형태가 있다. 석장승은 길쭉한 형태의 돌 하나를 세워 둔 선돌형, 돌머더기형, 비석형이 있고, 사람 형상을 조각한 석인형도 있다. 목장승·석장승을 불문하고 장승의 얼굴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남장승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툭 붙어진 눈에 뿔과 수염을 달고 있고, 여장승은 관모 없이 얼굴에 언지·곤지가 찌켜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승은 마을 수호신·경계표·이정표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장승이 자식을 기원하는 기자신앙과 동시에 낙태를 바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자식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장승의 코를 만지거나 장승에 기원했고, 반대로 낙태를 원할 때는 장승의 코나 눈을 갈아내 감초와 섞어 삶은 물을 마시는 민간비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에 산재한 많은 장승들의 코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이런 행위가 민간신앙과 비방으로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40여 장승유적이 있다고 한다.

#### 4) 양산골 지킴이 신당동 석장승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동면 숲 속에 석장승 1기가 있다. 바로 신당동 석장승이다. 계명대학교가 들어서기 전 이 지역에는 양산골로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양산골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절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면 숲 속 신당동 석장승▲

입구에 이 석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양산골 주민들은 예로부터 이 석장승을 ‘장군’ 또는 ‘정승비’라 불렀으며, 본래는 2기였을 것이라고 한다. 양산골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한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두 정승이 살았다. 무슨 연유에 서인지 두 정승은 서로 싸우다가 하나는 죽고 하나만 살아 남았다. 이때 살아남은 정승이 지금의 석장승이다.

신당동 석장승은 키 140cm, 둘레 95cm로 직사각형 화강석을 다듬어 조성했다. 머리에 관모를 쓴 남장승으로 반달형 눈썹, 올라간 입 고리, 두툼한 볼살 등, 얼굴표정이 험악하지 않고 후덕한 인상을 하고 있다. 두 팔은 가슴 쪽에 모아져 있으며,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 길쭉한 봉 형태의 물건을 두 손으로 쥐고 있다. 손에 쥔 물건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문·무인석이 들고 있는 홀이나 검은 아닌 것 같다. 남근숭배사상으로 보면 남근 같기도 하고 미륵으로 보면 보살이 들고 있는 지름 같기도 하다. 계명대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석장승에는 양산골만이 아니라 인근 다른 동네에서도 정월 보름이나 선달 그믐날이면 찾아와 제물을 차리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석장승 앞에 붙은 신당동은 현재 석장승이 서 있는 주소명이다. 양산골 석장승이 신당동 석장승이 된 셈이다.

#### 5) 에필로그

장승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변강쇠’가 떠오른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변강쇠는 말로가 영 시원찮았다. 부인 윤녀의 심부름으로 마을입구에서 있는 장승을 빼내 땀감으로 씻다가 그만 동티가 나 급살했기 때문이다. 변강쇠 같은 막무가내 사내도 장승 동티만큼은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장승에 대한 우리네 조상들의 오랜 믿음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참! 계명대 동문 앞과 석장승 뒤편 안내판에 명칭이 ‘석장승(石長性)’으로 되어 있다. 석장승(石長丞) 또는 석장생(石長性)이라야 맞다.

#### 목요단상(木曜斷想)

#### 아버지라는 이름

6,70년대 우리 아버지들의 밥상은 다른 식구들과 따로 차려졌다. 그때 아버지 밥상에는 다른 식구들의 밥상에는 없는 반찬들이 몇 가지 더 놓여있기도 했다. 이런 대우는 모든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아버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일종의 경외감이 생겨났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모자라도,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도 아버지는 존재만으로 존중받던 시절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 자체가 법이고 진리였다. 집안의 질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특별하고 경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친구 같은 편안한 존재가 되고 있다. 아버지에게서 이전의 절대적 권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많은 가정에서 이미 아버지 보다 아이들이 우선 되고 있다. 특별한 음식이 있어도 “이건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가 아니라 “공부 하느라 힘든 아이가 먼저 먹어야”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을 아버지도 아이들도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었던 이전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어머니의 역할이나 위상도 달라졌고 아이들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인 역할이나 가사의 분담 등 사회 환경과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가정의 경제권을 어머니가 행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권위는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처럼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아버지를 무조건 경외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에 위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편안하게’ 대하는 것과 ‘만만하게’ 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만함으로 변하기 쉽다. 편안함의 바탕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하며, 아버지가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

아버지는 수퍼맨도 아니고 신은 더욱 아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가끔은 어설픈 행동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선택일 수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이다.

변정식 기자



## 길을 묻고 답하다

### 결혼은 기적

배우자의 선택이 의미가 있는 것 있었기에 철학에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결혼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애인들도 배우자 선택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철학자와 같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이나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로 유명하다. 그는 손님과 담소하고 있는 중에도 아내가 고향을 치고 욕설을 퍼붓다가 구경꾼을 뒤집어 씌웠을 때 “천둥이 천 다음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라는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꼭 결혼하세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나와 같이 철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아마도 나쁜 아내가

있었기에 철학에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결혼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애인들도 배우자 선택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철학자와 같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도 빠지지 않는다. 모차르트는 만년에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나, 콘스탄체는 도박에 빠진데다가 낭비벽이 아주 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을 값싸게 치르고, 장대비가 온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모차르트 사후에는 모차르트의 자필 악보와 서간을 출판하여 돈을 챙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너무나도 다른 화성남자와 금성여자가 만나 살아가는 결혼은 기적이다.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 정서에서 남녀의 차이는 분명하다. 남자와 여자는 우선 보호해야 할 신체부위,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 무엇보다도 서로 상대 방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합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평행선 관계이다.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가능한 이유는 ‘연애를 하면 풍작지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남녀 차이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결합할 수 없었다면 이미 인류는 멸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사람

은 본능적으로 쾌감을 계속 느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성을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간 연애시의 두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남녀가 첫 눈에 반하는 시간은 1/1,000초라고 한다. 한 번 빠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풍작지 상황이 되어 버리고, 도파민이 분비됨에 따라 이성적 판단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른 선택 상황보다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구 동회 건영대학교 교수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 친환경운동장에서 마음껏 놀자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우레탄 운동장→마사토 운동장으로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올해 7월부터 총 사업비 26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해 관내 26개교 유해물질 우레탄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개월간 개정된 KS기준으로 유해성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학교 유·초·중 105교 중 26교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어린이들의 체내에 들어가면 발

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이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운동장의 우레탄을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물질 걱정이 없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했다.

마사토 운동장은 물빠짐이 우수해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위해 연중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흙을 밟고 놀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통해 3년 단



위로 한국산업표준(KS)에 맞춰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대구남부교육지원청>

## 우리들의 놀이 이야기, 소식지로 만나요~

화원꽃뜰유치원 소식지 발간

화원꽃뜰유치원(원장 제정희)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유치원 방문 부족을 주제로 실시한 다양한 원내·외 행사 등이 실렸다.

이런 소식지에는 2020. 역점 추진과제와 특색교육인 '햇살

처럼 밝게, 꽃뜰에서 함께, 나 무처럼 지혜롭게 놀아요'를 주제로 실시한 다양한 원내·외 행사 등이 실렸다. 각 학급별 코너에는 '친구와 한 손, 선생님과 한손! 함께하는 새싹반', '배려, 존중, 행복이 가득한 꽃잎반', '싱그러움 가득! 멋쟁이 풀잎반',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는 산새반!', '창의 광광! 생각 쑥쑥! 열매반', '사랑이 가득한 햇살반'이라는 학급별 슬로건과 함께 특색있는 놀이 활동을 가득 담아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새로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등 시설·설비 및 유아 안전교육 실시 안내, 맘껏 놀이터 및 상상 놀이터 설치 소식도 안내하여 학부모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만 5세 학급 교사는 "이번 유치원 소식지 발간을 계기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는 "올해는 유치원을 방문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유치원 소식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1년간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제정희 원장은 "코로나19로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었는데, 유치원 신문 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화원꽃뜰유치원>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효율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053-572-6000



애니맥스 TV최초 방영!

**도티TV**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첫방송

ANIMAX

©SANDBOX NETWORK All Rights Reserved.



## 제34회 ‘대구교육상’ 시상

대구성보학교 교사 노봉남·남부교육지원청 前교육장 김기식  
경북대사대부중 前교장 이동길·덕원고 교사 조치연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제34회 ‘대구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구교육상은 해마다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평생교육 부문에서 탁월한 공적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6명 이내의 인원에게 수상을 한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9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수상자 역시 각각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분야에서 대구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밑거름을 만드신 분들이다.

유아·특수교육부문 수상자인 노봉남 선생님은 ‘맑은소리하모니카 앙상블’을 창단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다수의 수상 실적이 있다. 장애학생의 예술적 소양

개발로 성취감과 자립심을 고양시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장애인식개선에 힘쓰는 등 대구특수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장애학생 맞춤형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초등교육분야 수상자인 김기식 전 교육장은 전국 최초로 창의성 교육을 대구시교육청 역점 과제로 추진하며 교육부 창의성 교육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공헌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 ‘북스타트 운동’과 ‘삶 쓰기 100자 운동’을 전개해 책 읽는 문화조성과 글쓰기 기초를 다지는 데 앞장섰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에 기여했다.

중등교육부문 수상자인 경북대사



대구성보학교 교사 노봉남



남부교육지원청 前 교육장 김기식



경북대사대부중학교 前 교장 이동길



덕원고등학교 교사 조치연

대부중 이동길 전 교장은 전국 공공립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중학교 프로그램(MYP) 후보 학교를 운영하며 IB World School 인증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다양한 교육 실천 방법들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 교실수업개선과 평가 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 혁신 모델을 제시해 제11회 포스코청암상(학교상)을 수상했다.

덕원고등학교 조치연 선생님은

배움을 즐기는 수학 교육 및 과점중심평가로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수학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IB 관심학교와 기초학교를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교육의 도입에 앞장섰다. 또한 동료교사들과 협업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 상원중, ‘오페라 힐링 콘서트’ 열어

상원중학교(교장 김택식)는 7일 7교시에 오페라 하우스 소속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를 중심으로 힐링 콘서트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귀에 익숙한 아리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성악가 6명을 초대해 콘서트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 콘서트였지만 오페라 줄거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도를 높였으며,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와 아름다운 노래가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콘서트에 참가한 한 학생은 “광고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었던 곡이지만 해설과 함께 들으니 더욱 새롭고 감동적이었으며, 요즘 방송의 영향으로 트로트나 일반 가요를 많이 듣게 되었었는데, 이번 콘서트 덕분에 클래식 음악이 어렵고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식 교장은 “올해는 학



생들 참여하는 행사와 축제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페라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

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상원중학교〉

## 달서 어린이 도서관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달서구 송현로에 위치한 달서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2021년 겨울학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달서구민이면 우선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인원 미달 시에는 타구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강좌는 총 7강좌로 모집인원은 총 70명이다. 구체적인 강좌를 살펴보면 성인 동화 구연, 알고 싶은 그림책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

나라, 그림책과 연극놀이와 같이 2015년생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강좌가 있다.

이 밖에도 2020년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 3~6학년은 대상의 생각이 크는 어린이 인문학, 초등 1, 2학년이 대상인 창의력 더하기 독서 등 학년성에 맞춘 개별화 강좌 구성이 특징이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개설강좌 목록을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다. 교육 일시의 경우, 강좌별로 조금씩 다르고 교재비나 준비물이 필요한 강좌도 있어 달서 어린이 도서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접수 방법은 50%의 방문 접수(달서 어린이 도서관 1층 사무실)를 병행하는 성인강좌를 제외한 나머지 강좌의 경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1인 1강좌 신청을 원칙으로 한

다.

홈페이지 접수는 달서구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가 아닌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수강신청 방법: 독서문화프로그램→온라인 수강신청→희망 강좌 수강신청→개인정보 입력) 하므로 유의해야 하고 임시로 문화강좌 및 독서교실 수강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개인 아이디 로그인 없이 개인 정보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06년 문을 연 달서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

한 특화된 도서관으로 유아열람실, 초등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만여 권이 넘는 아동도서와 5천여 권에 달하는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종합자료실의 경우 정기휴관일인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주말은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053-667-4860

이원목 객원기자

광고문의  
053. 572-6000

##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세계와 콘택트

호산고, 인도네시아와 온라인으로 국제교류

호산고등학교(교장 임상태)는 자매결연을 한 인도네시아의 ‘Budi Mulia Dua’ 국제학교와 온라인으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호산고는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와 국제교류 MOU를 체결하고 Budi Mulia Dua 학교와 격년으로 서로의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며 각 국가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교류를 이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방문이 연기되었다.

호산고는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하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택했

다. 인도네시아 관련 책을 읽고 저자를 직접 초청해 강연을 듣고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이용해 Budi Mulia Dua학교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 호산고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안부 인사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엽서를 써서 학교에서 준비한 문구세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보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인도네시아 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



다. 국제교류 단원들이 직접 운영한 부스는 인도네시아 퀴즈, 전통 놀이, 전통 음식, 전통 의상 체험, 사랑의 엽서쓰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호산고는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단원 학생들과 미술 동아리 학생들이 협업한

‘스캔 타일 아트 작업’을 마무리해 인도네시아로 보내어 호산고와 자매학교의 벽을 나란히 장식하며 두 학교의 우정을 오랫동안 기념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류를 이어가는 호산고의 노력은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산고의 국제교류 참가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내년에도 이러한 활동은 이어질 예정이다.

〈자료제공:호산고등학교〉

## 보건고 서가현, 대구시 보건직공무원 합격

대구보건고등학교(교장 안춘화) 3학년에 재학 중인 보건간호과 서가현 학생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보건직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대구시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특성화고에서 임용예정분야와 관련 있는 학과를 이수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기에 대구 유일의 보건계열 학교인 대구보건고 보건간호 계열 재학생과

졸업생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서가현 학생은 어릴 때부터 보건관련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꿈을 일찍 이룰 수 있게 해 줄 곳이 대구보건고등학교라고 믿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진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입학 후 3년 내내 높은 내신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1학년 때부터 공무원·공기업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공(公)·공(共)·공(共) 레

시피’, ‘보건직공무원 대비반’과 후 수업’에 참가해 필기 시험 3과목(공중보건, 환경보건, 생물)의 기반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급 임원을 맡아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에는(780시간) 병원에서

직접 임상실습을 하면서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공부를 하였고 올해는 국가고시인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서가현 학생은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밤늦게까지 매일 시간을 내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지도를 해 주시고, 지켜 있을 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들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 앞으로 미



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안춘화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대구보건고등학교〉





## ‘어르신들의 초상화’를 그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만이 가진 남다른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단적인 예로 동네 이발소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이발소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이발소나, 심심하고 차가운 느낌의 골목길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벽화 봉사 등이 있다.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김새미 양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용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어머니 김미혜 씨는 새미가 미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미술에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새미가 그림을 잘 그리고 즐겨 한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새미는 주위 사람들의 초상화를 무료로 그려주는 봉사를 하는데, 6학년 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봉사 경력 3년이다.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아버지

날 선물로 얼굴을 그려드렸는데 방에 걸어 두실만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어버이날 선물로 초상화를 꼭 그려드려요”

주위의 이웃 어르신들이나 심지어 지인의 지인들까지 거절하지 않고 초상화를 그려 드리지만 새미에게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우선, 나이가 60세 이상인 어르신만 그린다는 점이다. “가끔 친구들이 원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그려도 주지만 봉사대상은 주로 어른들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어른들은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한 사람의 초상화를 완성한 뒤에 다음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정성들인 작품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다.

새미의 담임선생님은 새미의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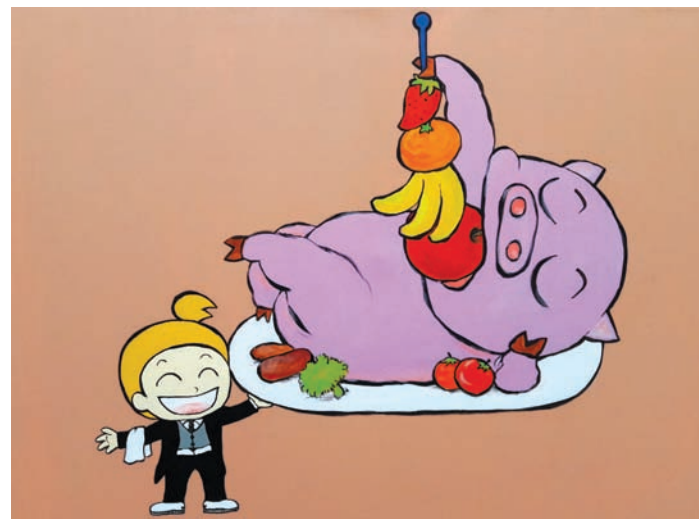


봉사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느끼게 하는 바가 크다고 이야기한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새미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표현하는 게 대견하지요”

실제로 새미가 하는 봉사는 미술

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술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로 초등학교 미술 교과의 정규교육과정에도 실려 있다. 새미의 선행은 단순히 봉사의 의미를 넘어 초상화를 그리면서 느끼는 뿌듯함에 본인의 인성까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김지윤\_북반아유.75x60캔버스\_아크릴.2019

## 2020 DSAC 퍼블릭아트플랫폼5 ‘Call out again’

15~30일 웃는얼굴 아트센터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15일부터 30일 까지 2018년 작은 전시장 초대작가들을 소환, 2020 DSAC 퍼블릭아트플랫폼5 ‘Call out again’을 선보인다.

작은 전시장은 대학졸업 이후 독립적 활동을 시작하는 미술대학 졸업생들에게 전시공

간을 지원해 마중물역할로 시작된 작은 플랫폼이다.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매년 신진작가 공모 초대전을 개최해 지역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며 신진작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회화, 사진, 조각 3분야의 작가 7명이 참여하는 ‘Call out again’전은 다양한 분야의 신

진작가들이 실험과 모색을 꿈꾸며 예술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대구 경북의 숨어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여 지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다 와인까지 곁들이면 비싼 레스토랑 부럽지 않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홈스토랑에서 차분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 근사한 분위기는 플라워 센터피스가 책임질 것이다.

서순옥 객원기자

## ‘플라워 센터피스’로 집안을 화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꼼짝없이 집에서만 보내게 됐다. 우울한 기분도 털어버리고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인테리

어 꿀팁이 있어 소개한다. 친구들과 함께 원데이클라스로 플라워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았다. 센터피스는 말 그대로 테이블 중앙에 놓는 것을 말한다. 꽃 같은 친구들과 꽃을 만지고 있자니 잠시나마도 꽃이 된 듯한 즐거운 착각에 빠져 참 행복한 시간이

였다. 진절하한 감사분의 꿈꿨던 지도로 꽃꽂이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어렵지 않게 근사한 센터피스를 똑딱 만들 수 있었다.

유칼립투스를 베이스로 꽃과 리시안서스, 카라, 하젤과 엠마우드를 순서대로 꽂았는데 은은한 분홍빛과 하늘거리는 꽃잎이 무척이나 근사하고 매력적이다. 보통은 낮고 둥그렇게 만들지만 길게 만들었더니 더 멋스럽다. 플로랄폼(오아시스)에 꽃기 때문에 2

주 이상 생생한 꽃을 감상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만들면 새해까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 수 있다. 시판되는 센터피스도 많지만 직접 만들었다니 훨씬 더 예쁘고 마음에 쏙 든다. 꽃꽂이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굳이 원데이클라스를 듣지 않아도 칠성꽃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생화를 구입해 혼자 만들 수 있겠다 싶었다.

플라워 센터피스와 분위기를 돋우는 양초 한 두개, 거기

## 수험생을 위한 가족음악회 ‘덕분에 콘서트’

19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수험생을 위한 가족음악회로 ‘덕분에 콘서트’를 19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개최한다.

‘덕분에 콘서트’는 대입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을 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됐다.

수험생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이 되어준 덕분에 시험을 잘 치렀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국악, 클래식, 탕고, 그리고 대중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인다. 지역 차세대 소리꾼 김수경이 사회를 맡아 관객들과 교감하며, 연주자로는 소리꾼 김수경 밴드, 반도네온 김선양, 소프라노 류지은, 바리톤 임봉석, 콘트라베이스 송성훈, 피아니스트 추교준, 그리고 아르스노바 남성중창

단 등 지역 출신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특별 이벤트로 가족, 친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사연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전석무료(사전신청), 공연정보 및 관람신청://artcenter.daegu.go.kr 문의) 053-606-6133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 음악과 흥이 넘치는 축제 같은 공연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십이야’ … 24~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시립극단(예술감독 정철원)은 제50회 정기공연으로 셰익스피어 코미디 연극 ‘십이야(원제 Twelfth Night)’를 24~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공연한다.

‘십이야’는 낭만희극으로 축제적 특징을 보여주는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이다. ‘십이야’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이 지난 1월 6일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뜻한다. 작품명처럼 공연은 마치 일상을 벗어난 축제와 같은 가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극은 얽히고설킨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쾌한 음악 등 다양한 유희

적 요소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공연은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여준다. 극에서 일상이 무너지고 닥친 위기 상황이 지금의 정국과 비슷하다는 점을 연출적으로 풀어낸다. 평화롭게 향해하던 배가 갑작스런 폭풍으로 난파되면서 쌍둥이 남매가 각자 생사를 알 수 없이 헤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동생이 간신히 일리리아라는 마을에 정착하고,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장을 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보여준다. 힘든 상황

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해피엔딩은 관객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한다. 이번 공연은 연극이지만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서 뮤지컬과는 다른 음악극 형식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악사가 직접 연주를 하는가 하면, 대사를 노래로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극 중 광대는 해설자로서 관객에게 소통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극을 이끌어 간다. 이 작품은 주연과 조연을 떠나 각 캐릭터가 가진 힘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 따라서 배우들의 개성 있는 연기가 더욱 요구되는 작품이다. 보통 단원들의 캐스팅은 평소



이미지나 대본 리딩 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철원 예술감독은 취임 시 정기공연은 단원들도 오디션 없이 캐스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배우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배우 스스로도 경쟁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단원들은 원하는 배역을 얻기 위해 치열한 오디션 경쟁을 펼쳤다. 배우들 간의 완벽한 케미와 코믹연기를 위해 망가짐도 불사하는 열정은 공연에 재미를 더한다.

〈자료제공:대구시립극단〉





#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으로 함께 이겨내요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 상담·치유 프로그램 가동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운영

대구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심리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격리자,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화 상담과 정신건강 정보제공, 치료지원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스스로 심리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마음톡톡' 앱과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심리상담, 스트레스 완화방법, 마음건강 수칙, 정신건강대처법, 분야별 도움요청 기관 안내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상담(치료)비를 지원한다. (1인당 8만 원)

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활용 마음건강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가이드북(영유아

정신건강, 여성 우울증 예방, 노인 화병관리 등)을 개발해 유치원(어린이집),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원, 시장, 임대주택 등 찾아가는 '마음 쉼'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실직(구직)자를 위한 상담과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이동상담소를 만들어 현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577-0199 / 대구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3-256-0199 /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256-2900 /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983-8340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564-2595 /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28-5863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353-3631 /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756-5860 /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37-7851 /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3-643-0199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후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만'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난임 치료로 내원하시는 환자들 중에서도 임신 후 비만으로 이어질까 고민하는 분들도 종종 뵈게 된다.

비만은 출산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거나 임신 전보다 2.5kg 이상 체중증가가 유지될 때 진단하게 된다. 산후 비만은 임신 중 체중증가 및 부종과 관련이 깊은데, 평상시에는 체중관리를 잘 하던 여성들도 임신을 확고하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음식을 갈구하거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산후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신 시 몸무게 증가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임신 후 체중증가는 11~16kg 정도가 적절하며, 특히 임신초기인 13주까지는 약 2kg정도의 체중증가 적당하다. 이 시기의 체중 증가는 태아나 양수의 증가가 아니라 양막의 지방 축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출산 직후에는 태아, 양수 등의 무게로 인해 평균 6kg정도의 체중이 감소하고, 6주 이내에 각종 분비물들이 배출되면서 2~7kg정도의 체중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며, 이후 3개월 동안 천천히 체중감소가 이어진다.

출산 후 엄마들이 많이 선택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굶기'다. 아이를 챙기다보니 본인 몸을 돌볼 시간이 없어 손쉬운 방법으로 굶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기혈이 모두 약해지고 관절과 근육이 손상을 입을 상태에서 굶는 다이어트는 역효과를 초래하기 쉽다. 회복이 더디질 뿐 아니라 칼로리를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살이 찌고 부종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 아이 때보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후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출산 후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서 비만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기혈(氣血)이 약해지고 림프 순환이 떨어져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부종과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 몸을 보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을 사용하여 부종과 함께 비만을 치료해야 한다. 평상시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산모라면 오로 등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을 쓰고 기혈순환을 돕는 산후보약을 사용해야하고 관절과 근육의 손상이 많은 경우 근육을 회복하는 약재들의 사용과 함께 추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식욕조절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포만감을 늘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한약을 먹어주면 모유수유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산모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산 후 2개월 전에는 체중감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산후에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 30분정도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은 몸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산모의 상황에 맞게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질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를 받으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현의원 ☎053-564-0401

## 무서운 플라스틱 함께 줄여나가요

다음의 설명하는 물질은 무엇일까? ①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②가벼우면서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쉽게 만들 수 있다. ③과다 사용이 바닷속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정답은 플라스틱이다.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였겠지만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꼭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가 됐다.

플라스틱은 분무기, 휴지통, 장난감 등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중 하나지만 동시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바닷속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멸종 위기 종인 바다거북의 콧속에 플라스틱 손가락이 박혀 죽거나 몸 길이가 4m가 넘는 고래상어의 위장관이 비닐봉지에 막혀 죽는 등 종종 이와 관련한 사례가 안타까운 사진과 함께 기사화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각 학교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증가 상황 속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이다.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제시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회용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에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에 달하며 이는 차로로 쌓을 경우 달까지 닿는다는 최근 기사도 있을 정도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비닐봉지인데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비닐 사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포장 제품보다는 포장을 안 한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음료를 구입하다라 라벨이 없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코로나19상황에서 택배가 늘면서 포장 쓰레기도 함께 늘었는데 되도록 한 번에 같이 주문하며 합성섬유보다는 천연섬유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7년 말 유엔은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1천만 톤에 이르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각국에 촉구했다. 일부 생태계의 파괴로 드러난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은 그 범위를 넓혀 이제는 인간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할 때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12월 21일 ~ 27일

재미로 보는 **달**

36년생 하마가 돕는 운이니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 48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 흉한 일도 길하게 변할 수 있다. 60년생 뒷사람의 신임을 받게 되니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2년생 실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과로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84년생 규모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96년생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37년생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마라. 함께 해결해야 한다. 49년생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면 근심도 없다. 자중할 것. 61년생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라. 73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시기다. 85년생 현재 어렵다고 해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97년생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은 바른 일이다.



38년생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다. 50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에 충실하라. 62년생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니 공명을 탐하지 말라. 74년생 작은 욕심으로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곧 다가온다. 98년생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39년생 손해 볼 일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 51년생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서둘러야 좋은 성과를 얻는다. 63년생 다소 경제적인 손실은 있지만 명예를 얻게 되는 운이다. 75년생 남을 도울 때에는 조건 없이 도와야 나중에 후회없다. 87년생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40년생 나중을 위해서 기력을 보충해야 할 시기이니 나서지 말라. 52년생 생활의 여유가 생기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64년생 거래처가 바뀌고 이랫사람과의 교류도 없어질 수 있다. 76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주변의 인심을 얻게 된다. 88년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니 인기가 상승한다.



41년생 멀리 내다보고 큰 것을 바랄 때 원하는 것을 이룬다. 53년생 공동투자를 하거나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65년생 험한 일을 스스로 피해가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77년생 뒷사람이 벌인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니 바쁜 시기이다. 89년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행운이 찾아온다. 움직여야 한다.



42년생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과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되리라. 54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만 안 되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공부하는 평생 하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78년생 아성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소홀하면 인심을 잃게 되니 주의하라. 90년생 남쪽이나 서쪽으로 움직이면 귀인을 만나게 되리라.



43년생 주변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 뒤면 공격을 당할 수 도 있다. 55년생 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순서부터 정해야 한다. 67년생 실재를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79년생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 91년생 이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성을 멀리하라.



44년생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56년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68년생 잘못된 일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온다. 80년생 자존심을 버리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된다. 92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45년생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도움을 준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부탁하라. 57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다. 69년생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 침착해야 한다. 81년생 말소침을 해야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린다. 93년생 약간의 이익을 얻으려고 명분을 버리면 나쁜 주의해야 한다.



46년생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어려움을 해결한다. 주변의 도움을 부끄러워 말라. 58년생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용이 중요하다. 70년생 위험한 일은 생기기 않으니 걱정마라. 주저하면 놓치게 된다. 82년생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취한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눈앞에 있다. 94년생 마음에 맞는 사람과 힘을 합쳐 일을 하게 되니 편안한 모습이다.



47년생 이익이 우선이고 자존심은 다음이다.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 59년생 성신력이 중요하다. 의지가 약해지니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71년생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감하게 움직여 봐야 할 때이다. 83년생 다투면 손해를 보기 쉬운 때이니 주의하라. 억울해도 함의가 좋다. 95년생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을 꺾아내리지 말라.

제 공 : 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 주간 일기예보

| 12월 17일 목요일         | 12월 18일 금요일         |
|---------------------|---------------------|
| <br>최저 -7℃<br>최고 4℃ | <br>최저 -3℃<br>최고 7℃ |
| 12월 19일 토요일         | 12월 20일 일요일         |
| <br>최저 -5℃<br>최고 4℃ | <br>최저 -5℃<br>최고 6℃ |
| 12월 21일 월요일         | 12월 22일 화요일         |
| <br>최저 -3℃<br>최고 6℃ | <br>최저 -3℃<br>최고 7℃ |

시사상식 **그린뉴딜**

☞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찾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13년 ‘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2020년 5월 9일 일간 ‘로몽드’에 ‘위기 이후 녹색기금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퍼즐



제1,003회

|    |    |    |    |    |    |    |    |   |
|----|----|----|----|----|----|----|----|---|
| 1  |    |    |    | 2  |    |    | 3  |   |
| 4  |    | 5  |    |    |    |    |    |   |
|    |    |    |    | 6  | 7  |    | 8  | 9 |
|    | 10 |    | 11 |    | 12 |    |    |   |
| 13 |    |    | 14 |    |    |    |    |   |
| 15 |    | 16 |    |    |    | 17 | 18 |   |
|    |    |    |    | 19 |    |    |    |   |
|    | 20 |    |    |    | 21 |    | 22 |   |
| 23 |    |    |    | 24 |    |    |    |   |

①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 발표 : 1,151호

## 1,001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자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최민영(일서구) / 서선영(일서구) / 최순재(일서구)



이용권 2매 ☎ 585-0100

이지우(일서구) 김성동

미과 **SPOLLEX**  
HIGWANGSPOLEX

이용권 2매 ☎ 593-9990~8

박만재(일서구) 윤선동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박소윤(회동초등학교 6-1)

이서현(문산초등학교 3-4)

양태원(칠성초등학교 6-1)

백은주(일서구 다사동)

성백전(일서구 월성동)



전선민(달서구 달구벌대로)  
신동호(달서구 대명천로)  
김정현(달서구 선원남로)  
정시현(동구 반야월북로)

서영숙(일서구 용산동)

백경인(일서구 용산동)

허수재(일서구 장기로)

김신영(일서구 다사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최상민(일서구 감삼동)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 &lt;가로열쇠&gt;

2. 곱음을 갖는 모양새 그는 ○○○○도 느리고 행동도 둔하다.
4.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로 넘어가며 했다.
6. 백선규에 의하여 일어나는 피부병. 주로 얼굴에 생긴다.
8. 활시위에 매겨서 당겼다가 놓으면 그 반동으로 멀리 날아가도록 만든 물건
10. 길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 ○○ ○종교
12.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출가 수행자를 일컫는 말.
14.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는 데에 ○○○이 되어 주셨다.
15. 이탈리아의 콜로다가 지은 동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나무 인형 ○○○가 훌륭한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정식 명칭은 ‘○○○○의 모험’이다.
17. 한 사람 한 사람. 감독은 선수 ○○○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다.
19. 손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20.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반도. 해변의 백사장은 부근의 아름다운 구룡과 아울러 명승지로 꼽히며, 해안 일대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국립 공원의 하나이다.
21. 얼굴 피부가 노화하여 생긴 잔줄.
23. 소리 없이 방긋이 웃음 또는 그런 웃음.
24. 부부가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을 느끼는 시기.

## &lt;세로열쇠&gt;

1. 무릎 작고 네모나게 썬어서 소매에 절인 후 고춧가루 파우더와 양념과 함께 버무려 만든 김치.
2. 영국의 작가 스위프트가 지은 풍자 소설의 주인공. 여왕이 ○○○가 향해 도종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진기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영국 사회의 타락상과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3. 시인. 낭만적 경향에서 출발하여 상징적인 서정시를 주로 썼다. 작품에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태양의 노래’ 따위가 있다.
5. 한때 동지아이론 큰 덩이.
7. 기존의 아이돌과 같은 사랑방방에서 벗어나 남성미를 강조하는 아이돌을 이르는 말.
9.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함.
11. 영상 신호를 기록하는 데 쓰이는자기 테이프, 음향 신호가 동시에 기록될 수 있다. 대역접해서 ○○○ 한 편을 빌려 왔다.
13.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보통 나체에 날개가 달리고 활과 화살을 가진 아이 모습이다.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 에 해당한다.
16. 절지동물의 단단한 껍질이나 연체동물의 껍질 때문에 함몰되어 있는 키틴을 이용해 흡수하기 쉽도록가공하여 만든 물질.
18. 개으른 태도나 버릇.
19.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
20.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21.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 그는 삼 년 ○○로 이사를 다녔다.
22. 살갗의 결. ○○이 곱다.

## &lt;1,001회 정답&gt;

|   |   |   |   |   |   |   |   |
|---|---|---|---|---|---|---|---|
| 백 | 혁 | 거 | 세 | 물 | 고 | 빈 | 점 |
| 수 | 리 | 마 | 당 | 방 |   |   |   |
| 무 | 김 | 새 | 연 | 회 |   |   |   |
| 당 | 구 | 색 | 연 | 필 | 초 |   |   |
| 무 | 연 | 가 | 시 | 노 | 리 | 개 |   |
| 동 | 제 | 막 | 월 |   |   |   |   |
| 개 | 화 | 기 | 갈 | 방 | 질 | 방 |   |
| 비 | 형 | 랑 | 광 | 파 |   |   |   |
| 양 | 아 | 지 | 진 | 다 | 르 | 크 |   |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www.prnsinmun.co.kr

대표전화: (053) 572-6000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등록번호 대구 다1130  
▶간행 주간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대  
▶발행인 조강래  
▶편집인 조강래

☎응원계좌안내  
대우은행 002-08-073 862-4  
국민은행 680-24-0070-047  
농협 794-02-235 282  
예금주: 푸른신문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 합 상 품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함께 하는  
즐거움

웃음과 감동주는  
씨엠씨가족오락파워



디지탈:57  
아날로그:37-1

CMC TV 1588-0669 www.cmctv.co.kr